

반도체가 이끄는 코스피 "사흘 연속 신고가에 4,500 고지 넘어"

새해 첫날부터 매일 100포인트 단위 신기록 경신 행진

차익실현 압력 속 외인 매도에도 조선·방산 등 강세에 낙폭 축소



붉은 말의 해인 2026년 정초부터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100포인트 단위로 마디지수를 갈아치우며 사상 최고지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 붐과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한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반도체 대형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6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67.96포인트(1.52%) 오른 4,525.48로 장을 마쳤다.

11.44포인트(0.26%) 내린 4,446.08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

장 직후 한때 4,395.00까지 밀리며 '4,400선'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곧장 상승 전환해 오후를 킴폭을 키운 끝에 전일 기록한 장중·종가 기준 사상 최고지(4,457.52)를 한꺼번에 갈아치우며 거래를 종료했다.

코스피는 새해 첫날인 2일 2% 넘게 올라 전일미달의 4,300선을 뚫은 것을 시작으로, 5일에는 3.43% 급등한 4,457.52로 장을 마치며 하루 만에 4,400선마저 넘어섰다. 이날은 '코스피 5,000 시대'로 향하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인 4,500고지에 발을 디디는 데 성공하며 한국 주식

시장의 새 역사를 썼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5천976억원의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기관도 1천393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전날까지 강한 순매수를 보이던 외국인은 순매도로 전환, 6천306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기관도 689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속한 전기·전자 업종에서 1조4천47억원을 순매도하고, 금융(3천845억원)과 증권(1천555억원), IT서비스(2천176억원) 등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가운데 스페이스X 투자 관련 지분가치 평가액이 1조원 이상 수직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미래에셋증권[006800]이 12% 넘게 올라 신고가를 경신했고, 한국항공우주[047810](9.41%)를 비롯한 방산주도 강세였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재건에 자금 기업들을 앞장설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전통 산업

주와 방산주 등을 위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분위기가 국내로까지 전이된 것도 배경이 됐을 수 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도 방산, 조선 등 호실적을 보이는 산업재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낙폭을 완화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후 1시 반 전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격히 낙폭을 좁히기 시작하다 끝내 상승 전환에 성공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2.03% 내린 13만5천300원으로 출발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0.58% 오른 13만8천900원으로 거래를 종료했다.

마찬가지로 0.86% 내린 69만 원으로 개장한 SK하이닉스는 4.31% 급등한 72만6천원에 장을 마치며 '70만 닥스'를 굳혔다.

한국투자증권 염동찬·서세현 연구원은 이날 '2025년 4분기 어닝 시즌 프리뷰'보고서에서 "대형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나머지 코스피200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넘어섰으며, 이익 증가율 격차는 2026년 3분기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신세계면세점, 말띠해 테마 마케팅으로 시즌 소비 공략

말띠해 상징 담은 테마형 프로모션 연초 쇼핑 수요 공략



신세계면세점이 2026년 붉은 말띠해를 맞아 시즌 테마 프로모션과 신상품을 선보였다.

이번 기획은 말띠해의 상징성과 새해 분위기를 쇼핑 혜택과 상품 구성 전반에 반영해, 시즌 소비 수요를 입체적으로 공략한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몰에서는 신세계면세점 단독 상품을 포함해 카테고리별 인기 상품을 엄선한 기획전이 진행 중이다. '신세계 Pick' 기획전에서는 2026년 라이징 아이템과 신세계면세점 단독 상품, 2025년 신규 입점 상품을 큐레이션해 집

중 소개한다.

시즌 한정 신상품도 카테고리별 중심으로 출시됐다. 주류 부문에서는 말띠 해 상징을 담은 신년 한정 에디션과 인천공항점 매장 연출을 결합해 고급 주류 수요를 공략한다.

조니워커는 대표 프레스티지 제품인 '블루라벨 Year of the Horse 에디션'을 선보였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로버트 운행 중이다. '신세계 Pick' 기획전에서는 2026년 라이징 아이템과 신세계면세점 단독 상품, 2025년 신규 입점 상품을 큐레이션해 집

중 소개한다.

형지 최병오 회장, 시진핑 주석 주최 국민만찬 참석

양국 20개 핵심 기업 참석한 사전간담회에선 K패션·AI·로봇 대표자격으로 참석해



패션그룹형지(회장 최병오)가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경제사절단으로서 간담회부터 국민 만찬까지 핵심 일정을 모두 소화하며, 패션 산업을 넘어 미래 웨어러블 로봇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테크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입증했다.

형지 최병오 회장은 지난 5일 경제사절단 일정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간담회에 패션 기업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이재명 대통령, 허리평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함께 자리했다.

고령화 시대의 돌파구로 제시한 '시니어 웨어러블 로봇' 사업이 국가 차원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는 평가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 10개 기업 국민 만찬에는 20개 기업만이 참석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이자 패션그룹형지의 창업자인 최병오 회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K패션 대표기업으로 성장한 형지의 발자취를 소개하며, '빠오시니

Deluxe 2026', 'Hennessy XO Deluxe 2026'을 출시해 말 실루엣과 레드 컬러 포인트를 적용한 한정 패키지로 선물 가치를 강조했다.

인천공항 1·2 터미널점 매장에는 말 모티프의 조형물과 비주얼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연출을 적용해 출국 고객의 시선을 끌고 있다.

레미 마틴 역시 화려한 케이스와 보틀 디자인이 돋보이는 '루이 13세', 'X.O.', 'V.S.O.P' 라인 한정 에디션을 선보였으며, 특히 '데미타딘 X.O.'는 중국 문화권의 새해를 겨냥해 출시돼 중국 관광객들의 소장 가치와 선물 수요를 동시에 강조했다.

향수 부문에서는 말 모티프의 보틀 디자인에 매혹적인 솔티드 피스타치오와 풍부한 가족향미 특정한 펜할리곤스의 '포르테이트 포튜이더스 핀리(FORTUITOUS FINLEY EDP 75ML)'를 단독으로 선보였다. 메이크업 부문에서는 에이지투웨니스(AGE20'S)의 더블커버 팩트 제품 '시그니처 마스터 AD 홍마 에디션'을 출시했다.

이현진 기자

산정특례 질환 및 진단요양기관 확대 희귀질환자 필수의료보장 강화

70개 신규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연간 14.7억 원 본인부담금 완화 예상

진단요양기관 추가로 극희귀질환자 등 의료접근성 향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 산정특례 대상 신규 희귀질환 확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국가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질병관리청과 협업하고 학

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귀질환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 및 산정특례위원회(공단)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지속적으로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해왔다.

'26년 1월 1일부터 'ARHGEF9 관련 장애' 등 신규 70개와 질병코드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를 포함한 총 75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1,314개에서 1,389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확대로 신규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질환 및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

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되며, 연간 약 14.7억 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 확대

공단은 2016년부터 진단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하 '극희귀질환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47개) 중 극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올해 추가 지정된 △경상국립대학교병원(경상남도

진주시), △원광대학교병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포함 총 44개 기관을 지정·운영한다.

지속적 진단요양기관 확대를 통해 극희귀질환 등의 진단 전문성 및 산정특례 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희귀질환자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업이사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봉 기자

하림 HCR 투어, 누적 견학객 10만 명 돌파…식품산업 관광 '롤모델' 정착

"투명해서 믿는다" 하림 HCR 투어 10만 방문객 돌파… 오감만족 미식 여행 통했다

10만 번째 방문객 축하 행사 및 스톱워치 게임, 사진 공모전 등 풍성한 이벤트 진행



월 5일자로 대망의 10만 명 고지를 밟게 되었다.

하림은 이번 10만 명 돌파를 기념해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은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우선 10만 명 달성 당일인 5일, 행운의 10만 번째 방문객이 포함된 일반인 가족 단체 관람객을 대

상으로 '특별 축하 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가족에게는 축하의 의미를 담은 미니 꽃다발과 치킨 상품권, 웅가리 키링이 참가자 전원에게 증정되었으며, 기념사진 촬영을 통해 뜻깊은 추억을 선사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이현진 기자

우리FIS, 금융 IT 인재 산실 '우리FISA 6기' 개강

점심시간 활용한 '런치톡' 신설... IT 실무 전문가 멘토링 접점 넓혀



우리금융그룹 IT 솔루션 전문기업 우리에프아이에스(대표이사 김백수)는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에서 '우리FIS 아카데미(이하 우리FISA)' 6기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FISA는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금융 IT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6기 과정은 △AI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등 3개 트랙으로 구성되며, 교육생들은 총 960시간의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금융권 내 AI 도입 가속화에 맞춰 AI 관련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우리FISA는 그동안 우리금융그룹 IT 실무진이 직접 참여하는 기술 세미나와 프로젝트 멘토링을 통해 교육생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여왔다. 이번 6기에서는 이러한 협업 전문가와의 소통 채널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활동에

더해 점심시간을 활용한 소규모 멘토링 프로그램 '런치톡(Lunch Talk)'을 신설, 교육생들에게 보다 밀도 높은 커리어·직무 상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백수 대표는 환영사에서 "우리FISA는 AI 시대의 금융 산업을 이끌어갈 디지털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며, "교육생들이 끝까지 과정을 수료해 최고의 금융 IT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정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